

가톨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1차
논술고사 문제지 【논술우수자 전형】 (공통)

지원학부(과) :

이 름 :

수험번호 :

<수험생 유의 사항>

- ▶ 수험생의 신원을 알리는 어떤 표시도 하지 마시오.
- ▶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십시오.

※ ㉠의 분석을 바탕으로 ㉡의 ‘똑같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문장으로 설명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250~300자 / 20점)

케팔로스 : 노년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젊었을 때의 갖가지 욕망들이 누그러지는 건 마치 노예가 수많은 난폭한 주인들한테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는 것과 흡사하지요. 그건 훌륭한 성품 덕분입니다. 절제할 줄 알고 쉬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노년의 신체적 고통과 불편함을 견디는 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생,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노년도 젊음도 다 견디기 힘들 겁니다.

소크라테스 : 제 생각에는 어르신께서 노년을 수월하게 견뎌 내시는 것이 훌륭한 성품 때문이 아니라 넉넉한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듯합니다. 부자들에게겐 위안거리가 많다고들 하니까 말씀입니다.

케팔로스 : 그런 주장에도 일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한 아테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장군의 말씀이 적절한 거지요. 어느 날 테미스토클레스 앞에 세리포스라는 들어 보지도 못한 작은 나라에 사는 어느 평범한 자가 나타나서는 테미스토클레스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유명한 것이 그의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출신 국가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자에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내가 세리포스 사람이라면 유명해질 수 없었겠지만, 당신이 아테네 사람이어도 유명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서 노년을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이 들어맞는 거지요.